



동우컴퓨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았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심
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나
일찍 종식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태풍이 유난을 떨었지만 그래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아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오직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

목사님이 18번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목회 36년의 노하우, 물 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야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헤쳐나온 목사님이기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에 주일설교영상을 다시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의 능력과 그 경험을 단단히 부어잡고 오늘의 위기를 돌파해가자고 역설하셨다.

“목회 36년, 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야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다か? 기도하면 여러분 앞의 태산 같은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충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놈들이 누굽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마8:16). 그 놈들은 잠시만 불이 꺼져도 얼씨구나 하고 바로 들어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합니다. 그러니 불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름이 떨어
어진 자동차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내
가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답이고, 해법이고, 길이다 생각하고 지금
 까지 달려왔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이것은 내가 유언처럼
 기도원 벽에 새겨둔 말입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을 때도, 교계에서 핍박이 오고
 교단에서 제명되었을 때도, 사지가 마비
 되고 눈이 터졌을 때도, 해외집회에 나가
 서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도 내가
 한 일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광야
 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며 수많은 문
 제 앞에서 오직 기도했던 것처럼, 나 역
 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성장시
 켰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
 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
 렸노라’(갈6:17). 시냇물로 산전수전, 공
 중전까지 다 겪은 나이기에 어떤 문제 앞

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병에서 놓임을 받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셨는데(사 53:5), 또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시려고 말구유에 나셨는데(고후 8:9),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병과 가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병으로, 가난으로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찢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기름이 없고 배터리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날 수도, 달릴 수도,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다 닦아놓았어도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것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건 아닌지, 내가 빈총을 들고 품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랬다간 언제든 귀신의 밥이 될 뿐이니까요. 얼른 불을 밝히고, 얼른 총알을 장전해야 합니다. 얼른 충전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내 목회 36년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여러분이 나를 닮기 원합니다(고전 4:16). 나의 믿음과 지혜를 닮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자는 누구나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봉우 이초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7:12~17)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최선'과 동일어이고, '열심', '열성'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 속 의미를 따지면 '충성'이란 말과도 흡사합니다. '열정(熱情)', '열성(熱誠)', '열심(熱心)' 모두 뜨거운 열(熱)을 쓰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정을 잃은 사람, 열심이 없어 대충하는 사람,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씨만 좋아도 소용없고 밭도 좋아야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져도, 돌밭에 떨어져도,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지요. 즉 열성이나 열심, 충성된 마음이 아닌 대만하거나 끈기, 인내가 없는 마음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 밭에서는 소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느 주인이 열 명의 종에게 한 므나씩 주고 먼 길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와 회계하니 어느 종은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고, 어느 종은 다섯 므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은 한 므나 받은 것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이렇듯 다른 것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은 '바로 나가'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익을 남기고 말리라.'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반면 땅에 묻어둔 자도 있지요. 왜요? 그 안에 열정이 없기에 의욕마저 없었던 것입니다. 뜨거워야 움직이거든요.

내가 불이 붙어야 남도 붙일 수 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자가진단해보세요. 아직도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냉랭해져 있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피운 열정이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로켓 끝에 불이 붙으면 앞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이나 거대한 꿈도 이루

어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은 그에게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고 성문은 불타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절망에 빠져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열정이 가득한 느헤미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남에게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법, 느헤미야의 뜨거운 열정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해졌고,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대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럼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비전이 있는 단체와 교회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휘관이고, 그런 자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지휘봉을 빼앗아야 그 단체가, 그 국가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열정을 잃어버렸나요? 먼저는 기도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목회 초반의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드렸건만 기도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29:12~13)고 하였고, 예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입니다. 하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닫아놓은 태의 문을 열었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려도 주의 일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도 다 커서 자립하고 독립했건만 '시간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 하면서 안 합니다. 다 핑계지요. 자고로 열정을 잡아먹는 놈이 있는데, 그놈이 게으름입니다. 그놈은 습관처럼

핑계를 입에 달고 살며, 열정을 사그라지게 하는 독버섯 같은 놈이요(잠26:13), 열정의 불이 타오르

고 하려면 물을 확 끼얹어 꺼버리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독려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천국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가지만, 상과 면류관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로 평가됩니다. 제가 괜히 밤낮없이 주의 일에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열고 올의 왕이 되고자 몸을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불이 꺼질세라 저를 채찍질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열정이 식은 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계3:15~16).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주인도 열정을 잃은 종을 어둠에 내어 쫓고 죽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태하고 게으른 자를

토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3:19). 이것이 지금 열정을 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차 다시 말하지만,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자그마한 불씨만 있어도 태산을 사를 수 있으니까요.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하라

사랑으로 해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4:8).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요3:16). 그 하나님은 우리도 열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가 없어, 그는 스스로 힘산준령을 넘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롬8:35).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지요. 아직 마음에 열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은 거의 다 꺼져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랬지.' 하며 낭만에 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계3:17~18). '그때 그랬지' 하며 과거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부도나지 않는 방법은 열정을 고수하는 방법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친구를 둔 네 명의 동지를 좋아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해내는 벤처정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 정신은 열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명작과 명품은 열정이 이뤄낸 산물 아닙니까?

희망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고, 꿈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희망도, 꿈도, 미래도 당신에게 등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되찾읍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선택의 기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의지는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순종할 권리와 순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무엇이든지 택하고 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행한 것에 대한 보응과 보상을 분명하게 경고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계22:11~12).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셨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로 살인을 밥 먹듯이 한 악독한 강도였다. 그러나 군중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쳤다(마27:22). 살인자보다 예수를 더 미워한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민중의 함성에 민란이 날까 두려워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다. 빌라도의 재판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여론과 함성에 따른 것이었다. 인간들은 악질적인 죄수는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는 싫어한다. 세상은 이토록 어둡고 험악하기만 하다.

우리는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요, 하늘로서 온 진정한 진리이다. 그러나 바라바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이다. 그들이 바라바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전1:26~29)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성경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눅6:22~23)고 하셨다.

성경에는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행7:55~60).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스테반은 참 미련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예수는 하늘나라에서 별떡 일어나셔서 그를 환영하셨다. 지금은 그도 없고, 또 그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도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영원히 옳은 선택이었을까?

예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웃으며 살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루소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저녁식사 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루소가 평소 자주 가는 연못이었다. 연못에 이르자 루소가 친구에게 말했다. “여보게, 나는 이 연못에서 스무 번이나 투신자살하려고 했었지.”

루소의 말에 친구는 깜짝 놀랐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을, 그것도 여러 번 생각했다는 말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친구가 물었다. “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친구가 묻자 루소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저 물속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너무 차가워서 견딜 수가 있었어지.”

진정한 유머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유머는 ‘까르르’ 웃는 박장대소(拍掌大笑)를 자

아내기보다는 조용한 미소를 짓게 한다. ‘요새 못생긴 사람을 용서해도, 유머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유머는 곧 지혜의 산물이다. 지혜는 메마르고 강박한 세상에 단비를 뿌리며, 장마철에 잠깐 나는 햇볕과 같다. 또한 유머는 리더십의 기술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을 이끄는 데는 유머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령에는 복종만 존재하나 유머있는 지도자와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코미디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유머는 사람의 두뇌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임을 알자. 그러니 유머 한 마디, 당신 마음의 포켓을 준비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잠25:11).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믿음의 경주자

토요일 낮, 일주일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신이 난 아이들과 자전거를 끌고 공원에 갔다. 이제는 제법 자유롭게 타는 딸을 지켜보다 안심하고 한적한 곳에 따로 앉아 있는 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딸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발목이 자전거에 짝 꺼서 어찌지 못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으니 어서 와보란 전화였다. 가보니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딸이 엎드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발목이 낀 채 울고 있었다. 매우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웃을 수도 없는 것이, 딸이 겁이 나서 더 우는 듯해서였다. 놀란 아이를 다독이는 사이에 구조대와 의료진이 도착해서 한참 애를 쓰신 후 무사히 발목을 뺄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아침에 ‘두려워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사가 41장 10절을 함께 암송했던 것을 떠올리며 딸은 그 순간에 두려워했던 게 부끄럽단다. 전 같으면 엄마인 나도 맘이 위축됐을 테지만 이번엔 감사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비록 위험한 순간이었으나 마치 자기 딸인 것처럼 애쓰며 돕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사하게 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다’라고 얘기 해주니 아이 얼굴이 한결 밝아진다.

힘겨울지라도 번데기가 스스로 껍질을 벗고 나와야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고,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프라이가 아닌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연단을 거쳐야 한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정의 어려움과 고통만을 묵상하며 쉽게 낙담하지 않는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의 길고 고단하며 외로운 경주를 할 때,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내 완주하여 환희와 기쁨에 찬 희열을 만끽하는 것처럼 말이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배출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크신 계획을 깨닫는다면, 비록 어제까지는 두려워하고 낙담했을지라도 이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의 모습이다.

이국진 사모

주님의 사랑

주일에배를 마치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TV가 깨졌어요.”

“뭐라고? 어찌다가...?”

“하이가 칼로 찔어요~~”

하이는 이제 18개월 된 셋째 아들입니다. 자기 형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놀다가 그만 TV를 깨뜨린 것이였습니다. 평소 TV를 많이 시청하지는 않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가전제품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의 새벽기도와 가정예배 때마다 큰 화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주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가할 때가 되니 낮에 받았던 연락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TV를 고치려면 수리비가 제법 나올 텐데...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수리도 수리지만 불필요하게 에너지와 시간을 쓸 생각에 조금은 짜증도 나고 화가 났습니다. 요녀석을 따끔하게 주의를 줄 요량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빠빠~~~”, 박수를 치며 녀

어질 것 같은 불안한 뽀박질로 하이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TV 옆에 서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깨써 깨써...”

저는 그 순간 자기의 잘못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빠에게 달려오는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TV가 깨진 것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오직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내가 실수했더라도 숨지 않고 아버지 품에 뛰어날 때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3).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셨나요? 지난 시간들로 마음이 위축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현장, 예배의 자리로 힘껏 뛰어나가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현승 목사

눈물로 뿌리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이 한 구절이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기쁜 일에 기뻐하고,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도 하는 것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표이지요. 1621년에 ‘추수감사주일’을 만든 청교도들의 신앙은 이를 뛰어넘어,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63일간의 긴 항해 내내, 우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편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미국은 혹독한 겨울이었고, 눈보라, 식량부족, 질병, 원주민의 위협으로 3개월

만에 절반의 가족과 동료를 잃었지만 불평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해에 거둬들인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그들의 감사는 자신의 영혼육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생명을 건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처절했고, 그래서 아름다웠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1621년 추수감사주일’이 기념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수많은 재앙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이 시대는 어쩌면 그때의 청교도들처럼 온 힘을 다해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코로나 사태, 경제 불황

이라는 파도 위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핍박과 시련 앞에 주저앉지 않겠노라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꺾을 수 없노라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앙 뒤에,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6절), 깨어 있으라!(42절), 예비하라!(44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45절) 명령하신 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깨어서 예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눈물의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 기억되고, 하나님께 인정되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인명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Good News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성격이나 생활습관이 완전히 판판입니다. 개는 사람들에게 정을 잘 주는 반면 고양이는 쉽게 정을 주지 않습니다. 배변활동을 할 때도 개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고양이는 배설물을 보이지 않게 땅을 파

서 묻거나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나와서 모두 자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꾹꾹 숨겨둔 채 깨끗하고 고결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체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죄와 허물을 감추고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죄악을 드러내어 치유하시고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수치스럽더라도 영적 치유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죄를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예수님게로 나와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예수 이름의 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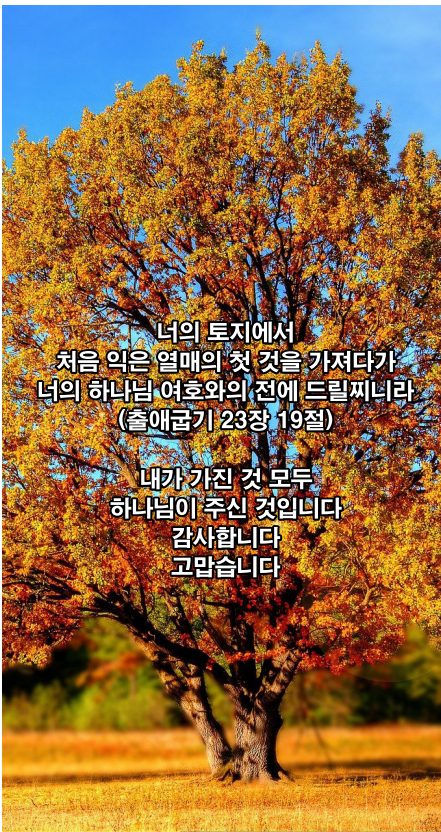
꿈에서 저는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도왔고 ‘이겼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깬 후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즈음에 귀신과 싸우는 꿈을 몇 번 꾸었는데 이겼다고 생각한 꿈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것도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도움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이 권세를 잃었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라 곧 포로로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꿈에 나온 그 사람이 실제로 제게 도움을 주었고,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는 흉악의 결박으로 꾹꾹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 금식을 하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애썼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귀신과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

다. 이번에는 귀신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간단하게 제압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멋지게 회복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군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영적 싸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깊게 쌓이고 녹슬었거나 혹은 잃어버렸다면 얼른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깨끗해져야 합니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누구와 싸울 것인가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엡6:12)’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무기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로지 악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떤 도발에도 묵묵히 참아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누가 알

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이다.’라고 늘 외치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영적 군사가 되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처소에서 올려지는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마귀의 체계를 파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릴 때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시 126:1~6).
지난 글에 조선의 임진왜란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전하면서, 지금은 예수님의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박영신
rubyday0@naver.com

내 가족

조실부모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남편은 9년 만에 얻은 딸을 애지중지 예뻐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남편은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고부터 하루 일과를 그저 술로 보내는 날들을 이어갔다. 그런 남편은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엄청난 피를 토하던 날 늦은 밤, 남편을 증오했던 나는 눈물이 강을 이루는 회개를 하였다. 부스스 일어나 그런 나를 그윽한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편은 다음날 스스로 알코올 치료병원을 찾아 입원하였다. 그 후 평화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 병원에서 잤든 외출을 통해 정을 나누며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되찾아갔다.
십여 년이 흘러 나는 식당을 시작했고, 남편은 퇴원하여 배달을 도왔다. 퇴원 후 남편은 도수가 약한 곡물주를 마시며 알코올 의존도를 낮춰왔고, 무사히 지금껏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얼마 전, 퇴행성 고관절 수술로 한 달 넘게 입원한 아빠에게 매일 병문안을 다녔던 딸은 “재활 열심히 하고 빨리 퇴원하세요.”, “배달 안 해도 되니 가게 오셔서 옆에만 계시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요.” 하며 애절한 사랑을 표현했다. 나는 남편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인식을 달리했고, 남편의 습성이 바뀌길 기다림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되어 남편을 전도하며 가정에 사랑의 온기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른 새벽 남편의 핸드폰에는 늘 예수중심교회 예배가 검색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 안도한다.
퇴원한 남편은 오늘도 한 손은 목발을 잡고, 힘겨워하는 딸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한 손은 배달통을 들고 한발 한발 내딛는다. 남편은 등한시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중적인 예전의 내 모습이 되살아날까봐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내 가족부터 사랑하자!’
추성숙 집사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드릴찌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내가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